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에 관한 연구

-영광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박미자^o 이귀상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산교육전공 전남대학교 컴퓨터 정보학부
almacy37@hanmail.net, gslee@jun.ac.kr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for Internet Addiction of Teenagers

- For high school student in Yeounggwang area-

Mija Park^o Guee-Sang Lee

Dept. of Computer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인터넷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중독증이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지역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중독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광지역의 고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김현수(2000)가 번안한 Young의 인터넷 중독 검사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평균사용자는 44.2%, 초기 중독사용자 53.16%, 심각한 중독사용자 2.7%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초기 인터넷 중독 성향을 보면 1학년52.9%, 2학년 66.3%, 3학년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을 보면 온라인게임, 정보검색, mp3파일 다운로드, 동호회 활동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중독자와 심각한 중독을 합하여 중독경향군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55.8%에 해당하는 학생이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서 론

지금 우리 시대는 인터넷이 전화나 냉장고처럼 피할 수 없는 생활의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시공을 초월하여 제공해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해준다. 그래서 인터넷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그 어떤 도구보다도 역동적이라 할 수 있다.[1]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화 정책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컴퓨터 교과목의 지정과 국민PC의 저렴한 보급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터넷이 빠르게 펼쳐지게 되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초고속(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21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인터넷 서비스에 94%가 가입돼 있는 상태로(ITU REPORT, 2003년 9월 16일), 대부분의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이용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2월 기준 2,922만 명으로 65.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넷 이용률이 확대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로 중독증이나 사이버범죄와 같은, 이른바 정보화의 역기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점점 확산되고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초·중·고생의 인터넷 중독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부가 대도시와 농어촌 등 전국의 초·중·고 학생 2000명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체 초등학교생의 5.0%(21만명)과 중·고교생의 4.2%(약 15만명)가 '인터넷 고위험사용자'로 판명되었다.(디지털타임스 2003년 8월29일)

위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도는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은 하나의 필수품이 되어감에 따라 그 폐해도 날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광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실태와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

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은 가상공간의 활동에 집착하고 의존하여 기분의 변화, 내성, 금단 증상, PC사용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재발 등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다 큰말로 사이버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웹바홀리즘(webaholism) 등으로 불린다.[2] 이중에서 인터넷 중독장애라는 용어는 1995년 Goldberg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인터넷 중독이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 마찬가지로 지각 장애, 주의력 장애, 사고력 장애, 판단력 장애, 정신운동성 행동장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경고하였다.[3]

이러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인터넷 중독은 의사소통의 장애로 보는 것으로 인터넷이 현실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비효율성 혹은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보상수단의 하나가 됨으로써 이에 의존하여 중독되게 된다는 것이다.[4] 둘째는 인터넷 중독은 과작성 상태를 추구하는 장애[5]로 인터넷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관계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과작성된 상태로 지내게 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된다. 셋째 인터넷 중독은 관음증(voyeuristic) 상태 혹은 노출증(exhibition)의 변형으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관련된 중독행위를 관찰하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경향이 인터넷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6]

2-2. 선행연구

국내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폐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희경은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을 2시간 이상 사용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인터넷 중독 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며[7]. 최중환은 인터넷에 빠진 여자고등학생들의 도덕적 사고의 문제점과 중독 정도의 심각성 수준, 남학생들의 중독과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중독의 윤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8]. 오태경은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99%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주로 여가나 놀이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게임 중독도 인터넷 중독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나타내는 증상들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0]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전라남도 영광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개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문고1개교(n=100), 실업고교2개교(n=380)가 포함되었다. 이는 현재 이 지역의 고등학교가 인문고 2개교, 실업고 5개교를 감안하여 대상인원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자료를 배포, 수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총 500개의 자료 중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일정 기준 이상 부실하거나 누락된 20개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480명만 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 도구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문은 강운위(2003)의 설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고[11], 인터넷 중독 척도는 Young이 고안한 Internet Addiction Scale을 김현수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40점 이하는 평균이용자군, 40점 이상은 중독가능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3-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0.0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인터넷 중독 항목에 대한 분석은 실수와 백분율,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 청소년 480명 중 실업고학생이 380명(77.2%), 인문고학생이 100명(20.8%)이며, 성별은 남자가 62.7%, 여자가 37.3%로 나타나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1학년 58.8%, 2학년 25.4%, 3학년 15.4%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170명(35.4%)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74명(15.4%)의 학생은 학교생활에 불만족하고 있고, 49.2%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강운위(2003)의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12] 도시 지역이나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은

대체로 상 중 하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에 있어서 편모나 편부, 소년소녀가장에 해당하는 학생도 24.7%나 해당이 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관심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표1> 인터넷 이용실태 신뢰도는 Alpha = .8762를 보이고 있다.

<표1>일반적인 특성

구분	내용	빈도	퍼센트
학교	실업고	380	79.2
	인문고	100	20.8
성별	남	301	62.7
	여	179	37.3
소속	고1	282	58.8
	고2	122	25.4
	고3	76	15.8
만족도	예	170	35.4
	아니오	74	15.4
	그저 그렇다	236	49.2
성적	상위	132	27.5
	중위	168	35.0
	하위	180	37.5
가족 구성	부모님	364	75.8
	아버지	26	5.4
	어머니	54	11.3
	모두 없음	36	7.5
합계		480	100.0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 보유현황은 91%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CPU의 성능은 70%이상의 학생들이 최신형 컴퓨터인 펜티엄3와 펜티엄4를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가 놓인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내방 50.4%, 형제 자매방 16.5%, 안방 11.2%로 나타나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자신의 방에 두고 있어 부모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워 쉽게 인터넷 중독의 길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표2> 컴퓨터성능과 보유 및 컴퓨터의 위치

구분	결과	빈도	퍼센트
소유여부	있다	437	91.0
	없다	43	9.0
CPU 성능	펜티엄2	32	7.3
	펜티엄3	175	40.0
	펜티엄4	141	32.3
	모름	89	20.4
컴퓨터가 놓인 위치	내방	220	50.3
	형제 자매방	72	16.5
	안방	49	11.2
	거실	76	17.4
	기타	16	3.7
	무응답	4	.9
	소계	437	100.0
합계		480	100.0

4-2.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 중독실태를 보면 평균이용자 182명(44.2%), 초기중독사용자 219명(53.16%), 심각한 중독사용자 11명(2.7%)으로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표3>. 본 연구에서는 초기중독 사용자와 심각한 중독사용자를 묶어서 중독경향군으로 보고 평균이용자군과 비교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를 알아보았다.

<표3> 인터넷 중독 실태

구분	빈도	퍼센트
중독성		
평균이용자	182	44.2
초기 중독사용자	219	53.16
심각한 중독사용자	11	2.7
합계	412	100.0

학교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를 살펴본 결과 중독경향군에 실업고 55.2%, 인문고 58%로 나타나 학교유형에 따른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실업고보다 인문고의 중독경향군이 높은 것은 인문고의 조사대상이 1학년이고, 대상인원이 실업고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리라 생각이 된다<표4>.

<표4> 학교유형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

학교유형	평균적이용자군	중독경향군	전체	$\chi^2(p)$
실업고	145	179	324	.206 (.650)
	44.8%	55.2%	100.0%	
인문고	37	51	88	
	42.0%	58.0%	100.0%	
전체	182	230	412	
	44.2%	55.8%	100.0%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는 기존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 중독 경향군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나 성적 및 동거가족구성원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실태는 하루 1시간 미만 사용자의 경우 59.7%가 평균이용자군, 40.3%가 중독 경향군을 보이고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람 중 62.5%가 중독 경향군에 속하고 있어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경우 가장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표5> 인터넷 접속시간에 따른 중독실태

구분	평균이용자군	중독경향군	$\chi^2(p)$	
접속시간	하루 1시간 미만	27	15.983 (.001)	
		59.7%		40.3%
	일주일에	36		29
	1,2시간	55.4%		44.6%
	한달에 1,2시간	4		2
		66.7%		33.3%
거의 매일	102	170		
	37.5%	62.5%		
전체	44.4%	55.6%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5.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도시중심의 인터넷 중독 실태 연구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인 영광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터넷 이용실태에 있어서 전체 학생의 91.0%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고 72.3%가 CPU성능이 펜티엄3,4에 해당이 되고, 컴퓨터가 놓인 위치는 자신의 방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8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도 결코 정보화분야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는 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대한 설문을 복수응답 처리한 결과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한다는 82.6%,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 59.6%, MP3파일 다운로드 58.7%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대부분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인터넷 중독 실태를 보면 평균적 이용자가 44.2%, 중독경향을 보이는 중독경향군은 55.8%를 보이고 있다. 중독경향군 중 2.7%는 심각한 중독이용자이다. 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중독경향군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가 상호협력하여 건전한 인터넷 활용과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 교과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자녀의 인터넷 활용 습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인터넷 중독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1] 이소희,오영재,김민,김민규, 인터넷 중독의 이해, p.3, 학지사, 서울, 2003.
- [2] 이명수, 오은영, 조선미, 홍만재, 문재석, "청소년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 사회적 불안, 또래관계 문제와의 연관성 조사",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4호, pp.617, 2001.
- [3] 신경선, 조미현,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 한국정보교육학회논문집, 제8권, 제1호, pp.317, 2003.
- [4] Walther,JB. "Attraction to computer-mediated social support", Working paper,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 Northwestern university, 2000.
- [5] Wellman B. An elctronic group is virtually a social network,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6.
- [6] Kimberly S. Young, 김현수역, 인터넷 중독증, p. 335-336, 나눔의집, 2000.
- [7] 오희경,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실태 및 대책(청주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4-48, 2003.
- [8] 최중환, "여고생에게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의 실태에 대한 바람직한 윤리적 접근방법",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92-114, 2002.
- [9] 오태경,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연구(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6-47, 2003.
- [10] 현대원, 김명준, "인터넷 중독의 사회적 중요성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8호, pp. 162, 2001.
- [11] 강운위,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 분석",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27-33, 2003.